

어선감척 불구, 어항시설 확충 불가피

어항이용 소형어선 28% 증가, 안전 수용률 49%에 그쳐



■ 어항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태풍래습때 어선이 피해를 입는 등 어민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.

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정부의 어선감척사업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해양수산부가 발표한 「선진어항 개발 정책방향」에 따르면 항·포구에서 수용해야 할 연근해 어선은 96,749척으로 이들 어선들을 안전하게 접안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 소요연장은 140.9km가 필요하나 2002년 말 현재 계류가능 시설연장은 전체의 51%인 71.86km, 수용가능 척수는 47,001척으로 안전수용률은 49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어선감척을 고려하여도 105개 지정 국가 어항이 완공되는 2007년 이후 안전수용률

은 78%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러한 어항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지난 2002년 태풍 '루사'의 경우 881척(377억원), 2003년 태풍 '매미' 때는 5,901

척(350억원)의 어선이 피해를 입는 등 어업인들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일부에서는 어선감척을 이유로 어항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어선감척은 주로 항만을 이용하는 10톤 이상 중대형어선에 집중되어 26% 감소한 반면, 어항을 이용하는 10톤미만 소형 어선은 95년 기준 69,432척에서 2002년 89,091척으로 28%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러한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항개발 투자비를 대폭 확충하여 투자중인 어항에 집중 투자하여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, 수산세력, 어선이용실태 및 전망, 시설소요 등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후 어항시설의 적정규모를 재산정하여 어항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(관련기사 4면)

어항의 관광화 어촌의 공원화

제호변경안내

“漁港消息”이 “어촌어항소식”으로

그 동안 어항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어항관련 소식을 전하던 월간 “漁港消息”이 월간 “어촌어항소식”으로 제호를 변경합니다.

이와함께 규격도 타블로이드판 4면에서 A4변형 8면으로 개편하였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항 관련 소식 뿐만아니라 어촌문화, 관광, 해양환경·어장 정화 정비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“어촌어항소식”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-어촌어항소식 편집실-